



가정집이 어린이 불장난으로 불에 탄 광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어린이 불장난 잇단 화재... 경기소방 '주의보' 발령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용인시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집에 5살 A군이 갇혀 다급한 상황이었다.

출동한 소방은 안방 창틀 쪽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해 무사히 구조하고, 20여분 만에 화재도 진압했다. 불로 안방 일부가 탔는데, 안방 바닥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 불은 A군이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가 났다.

4일에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13세 B군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 재활용 쓰레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복도 일부와 집기 따위를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처럼 어린이 불장난이 화재로 이어

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기소방이 불장난 주의보를 내렸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발생한 불장난 화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77건이다. 어린이 불장난에 모두 3명이 부상을 당했고, 6억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도 났다.

경기소방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라이터와 성냥 따위를 사용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외출할 때 모든 화기 안전점검과 아이들에게 수시로 불조심 교육하기 ▶성냥과 라이터를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119 장난전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기를 당부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